



성도의 빛 8 198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8  
1981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킴볼  
엔 엘든 태너  
메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콘슨  
보이드 케이 퍼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클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엠 러셀 벨라드 미세  
로레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에프 엔지오 부쉬

"일심으로 행하여 형동하였더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단..... 1  
브래든 형제 : 우리의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세론 엔젤..... 7  
비활동 회원을 강화함.....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10  
4,800킬로미터를 달린 여인.....이 데일 르베론.....19  
질의 응답..... 22  
작은 책.....자크 펠쇼.....26  
폭풍 놀만호.....키이드 브라운.....28

나는 신권의 능력이

위대함을 깨달았다.....에이 해머 레이저.....34  
고 백.....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36  
파로완에서 생긴 일.....올리브 더블류 버트.....39  
심심풀이..... 43

친구가 친구에게.....조린 케레디스.....44  
지역 지도자 메시지.....고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46  
지역 소식..... 4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부 청년 회장단 메시지.....5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부 청년 회장단 메시지.....52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요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의도/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193호 제17권 제8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델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STOCK NO. PBMA 0609KO PRINTED IN SEOUL, KOREA 8/81 International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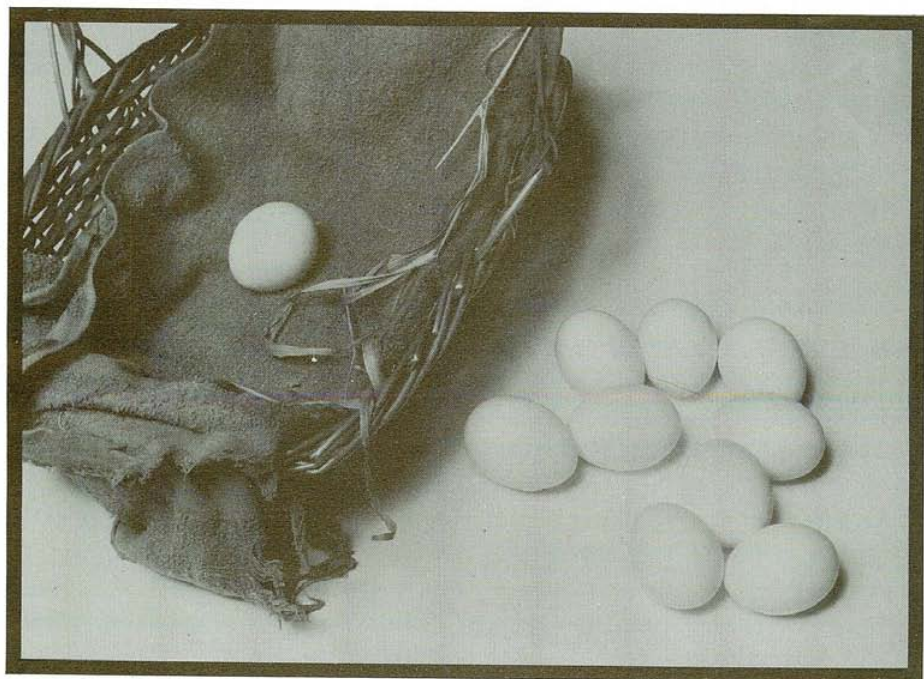
© 198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경 제적인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 주신 영적이며 물질적인 율법을 개별적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으로나 교회 입장에서 강경하게 실행해



야 하겠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때 “쌍을 곳이 없도록”(말 3:10)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된 율법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안전이며, 하늘로부터 도움이 오리라는 큰 확신을 주는 십일조의 법입니다. 나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주님께서 니파이인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에게 십일조에 관해 말라기가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에 항상 감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바 곧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매 저들이 기록하였고, 예수께서 이를 풀어 설명하시었으니,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같이 기록되었느니라.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시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쌍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이르시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땅의 소산인 열매를 멸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 밭의 포도 열매를 멸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니삼 24:1, 8-12)

오늘날 누가 이 약속된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아하스라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앗수르와 블레셋으로부터 경제적 및 정치적인 전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대하 29:2)하게 통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경전의 가르침으로 돌러졌고, 다시 계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 왔으며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 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 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의 전에 드리기를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대하 31 : 5-6, 8-10, 20-21)

주님은 유다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시편 저자가 말한 바대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 24 : 1)

말일에 주님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고 헌물을 받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이 주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교성 59 : 16, 18)

모든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백성이 축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십일조의 법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요구하노라...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 율법으로써 내게 시온의 땅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나의 율례와 심판으로써

이를 지켜 그 땅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땅은 너희에게 시온이 아니니라.

“이는 모든 시온의 스테이크에도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다. 아멘.”(교성 119 : 1, 4, 6-7)

여기에서 주님은 십일조는 그의 율법이며 그를 좇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준행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명예요 특권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요, 약속이고,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임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며 “대사를 소홀히”(교성 117 : 8 참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소홀함이 아니라 범법 행위입니다.

돈은 없고 써야 할 곳은 많을 때, 십일조를 바치는 데에는 큰 신앙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도 기억합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이러한 원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규적인 산 간증으로써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참된 생활 교훈은 자녀가 어릴 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는 말을 잘 듣고 솔직하며, 부모의 제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족에서 나는 소산물을 십일조로 바치기 위해 먼지가 나는 길을 어머니와 함께 걸어서 감동님의 집

으로 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걸어가면서 나는 “왜 감독님께 계란을 가져 가는 거예요?”라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십일조 계란이야. 감독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일조를 받으신단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매일 저녁 계란을 받으면 첫번째 계란 하나는 조그만 광주리에 넣고, 나머지 아홉 개의 계란은 큰 광주리에 넣으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십일조의 법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집 서쪽에는 채소밭이 있는데 채소밭 한쪽에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누나와 제게 “감자가 우리가 필요한 것 보다 많이 있으니, 내다 팔아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나 앨리스와 함께 감자를 꺼내서 호텔로 가지고 가 팔았습니다. 판돈을 아버지께 보이자, 아버지는 그 돈으로 무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돈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십일조는 어떻게 하고?”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단다. 우리가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어들였지만 땅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께서서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셨어. 우리는 항상 주님께 십분의 일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해.” 아버지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영광이요 특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친구와 함께 그의 목장에 가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커다란 새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내 차 어때?”라

고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호화스러운 자동차를 타고는 교외로 빠져나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거만을 떨지 않으면서 “이전 내 집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잔디가 깔린 언덕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활하게 넓은 자기의 소유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북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의 나무들 보이지?”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저녁 노을 속에 반짝이는 호수가 보이지?” 그것도 보였습니다.

“저 남쪽에는 벼랑이 있어.” 우리는 돌아서서 먼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쪽에 있는 곡간, 목장 경영자의 주택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팔을 넓게 벌리면서 자랑하셨습니다. “저기 나무에서부터 호수로, 또 벼랑으로, 그리고 집까지가 전부 내 것이야. 그리고 저기 풀밭에 있는 작은 점 같은 것은 내 소떼들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재산의 주인을 추적하니 정부에서 불하한 땅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그의 재산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땅을 누구에게서 받았나?”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 땅 값으로 무엇을 지불했지?” 내 머리 속에 바울이 담대하게 인용했던 시편 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고전 10:26)

그런 다음 내가 물었습니다. “소유권

“만군의 주가 이르시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 일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까? 그분이 값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자네에게 파셨나, 아니면 대여하신건가, 아니면 주신건가? 선물이란 누가 주신거지? 판것이라면, 어떤 화폐로써 거래된 것인지? 대여라면, 바르게 계산하고 있는 건가?”

그런 다음 또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농장을 얼마에 샀으며 무엇으로 샀나?  
 “돈이지.”

“돈은 어디에서 났지?”

“내가 일하고, 땀흘려 노력하여 번 것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땀의 원천은 어디에서 얻은 것이지?”

그는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햇빛과 수분과 흙에 의해서지.”

“그러한 요소는 누가 주었지?”

나는 시편 저자의 노래를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흠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을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시 68 : 9)

“땅이 자네 것이 아니라면 자네는 땅 주인에게 그의 관대함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가? 경전에는 ‘가이사의 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기록되어 있어. 자네는 자네의 산물에서 몇 퍼센트를 가이사에게 바치고,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바치나?”

“자네는 성경을 믿나? 자네는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나? 자네는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신 ‘땅은 여호와의 것’(출 9 : 29)이라고 하신 것을 믿는가?”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경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조건 없이 네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러한 성구는 찾을 수 없지만 시편에는 이런 성구는 있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시 37 : 9)

“나는 창조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행하신 천국 회의에서 맺으신 성약을

기억해.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다.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아브라함서 3 : 24)

“이것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닌 임대와 같다고나 할까!

“땅까지 모두 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산다는 조건하에 인간에게 그 땅의 것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내 친구는 자기가 고작 접 많은 임차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사실을 부인하려 애쓰려는 듯이 자꾸만 “내 것이야, 내 것이야.”라고 웅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후에 나는 궁전처럼 화려하게 꾸며 놓은 가구들 가운데 영원히 잠들어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감겨 주었으며 그의 영결식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시신을 묻어 달라고 한 작은 땅으로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후에 나는 그 땅에서 마치 주인이 누구인가는 아랑곳 없는 듯 황금 물결치는 들판과 눈이 내린 흰 들판과 같은 목화밭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일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율법이며, 큰 축복입니다. 가족을 한데 불러 모아 주님께서 증거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약속, 곧 어느 누구도 이것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

지 아니하나 보라”(말 3 : 10)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는 말씀을 표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같이 행하고 또 히스기야가 행한 것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친절과 선하심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큰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합당하면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그곳에 계시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가정 복을 교사를 위한 제안

1. 십일조의 축복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가족에게 그들이 가졌던 경험이나 느낌을 말하게 한다.

2. 이 기사에서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자 하는 성구나 여러분이 함께 읽고자 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지 알아 본다.

3. 킴블 대판장은 십일조는 영적인 율법인 동시에 물질적인 율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오는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토론한다.

4.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한다.

5. 방문하기 전에 그 가정의 가장을 먼저 만나서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십일조에 관하여 가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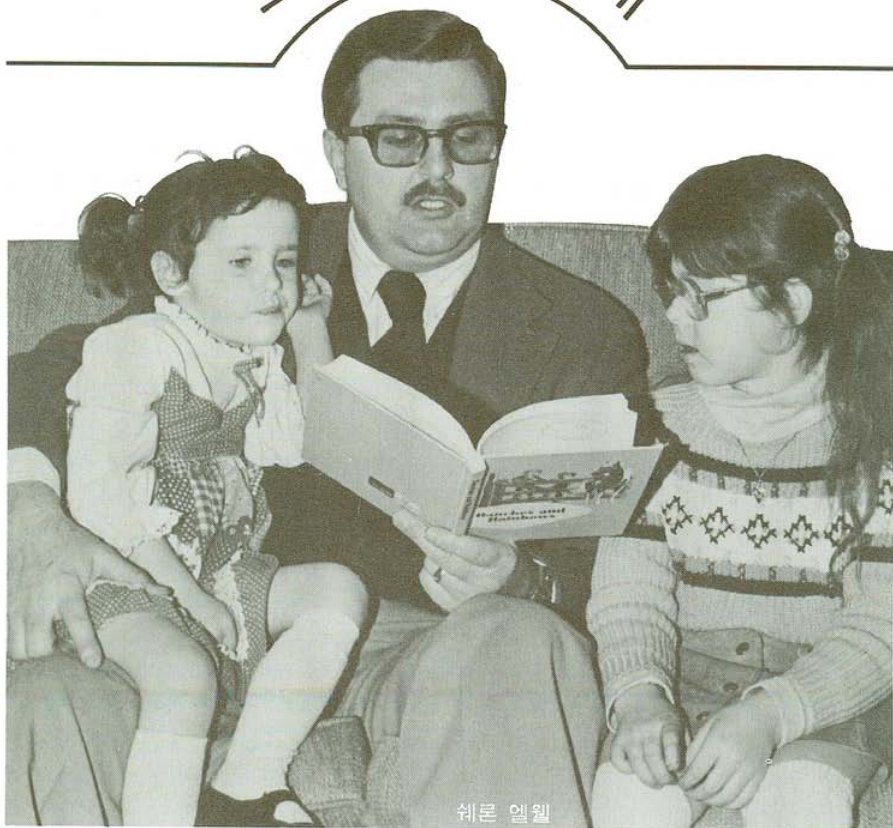


나는 이튿날 반게 될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은 퇴근하는 길에 잠시 들렀다. 남편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기 보아 주는 애인 재키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우리 세 딸을 데리고 워드 소풍에 따라갔다고 말

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지 5분도 안돼 재키의 아버지가 와서는 막내가 소풍을 가서 시이소를 타다 떨어져 아랫층 응급실에서 찢어진 턱을 꿰맸다고 알려 주었다.

한편 소풍을 간 여섯 살 된 딸은 주위

## 브래 든 형제



워런 엘웰

## 우리의 훌륭한 가정복음교사

를 둘러보고 자기의 가족이 없는 것을 알았다. 함께 온 언니는 주일학교 반에서 놀고 있었고 공원도 아이에게는 생소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고 갖가지 생각으로 무서워진 아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울음 소리는 온 공원에 울렸다. 아이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를 가정 복음 교사로 데려다 주세요!” 곧 아이는 브래든형제의 무릎에 포근하게 안기게 되었고 모든 일은 잘 되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맡은 가정 복음 교사와 같은 가정 복음 교사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접근 방법은 독특한 것이지만, 그의 성과는 가정 복음

브래든 형제님에게 전화로 축복을 부탁하던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는 잠시 후에 핀리 자매의 집에 도착하였다.

우리 가족의 경우에는, 나의 남편, 존이 밤 늦도록 일하던 날 밤이었다. 우리 딸 케리가 저녁을 먹은 후 갑자기 고열로 소파에 쓰러져 신음하며 괴로와 하였다. 바로 그때 브래든 형제가 문을 두드렸다. 캐리는 브래든 형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무릎으로 기어 오르더니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고 나서는 잠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딸을 침대에 눕히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꿈쩍도 않고 앉아 있다가 아빠가 돌아오

---

그가 더 중요한 임무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한번도 갖게 한 적이 없었다.

---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잘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된다. 그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가족 모두는 브래든 형제를 그들의 특별한 친구요, 제일 먼저 도움을 줄 사람이며,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브래든 형제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여러 달 동안 담당해 온 가족에게 봉사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가족은 모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 걱정이군요. 형제님이 그녀와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라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말하게 되었을까?

아마 그것은 등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며 병상에 누워 있던 핀리 자매가 통증을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자 아빠에게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약을 사오겠다고 했다. 그날 밤, 또 그 다음날에도 딸은 우리 가정 복음 교사로부터 안부의 전화를 받았다.

브래든 형제의 또 다른 점은 그가 결코 그의 방문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 모임이 끝나고 잔디밭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그의 관심사의 목록을 훑어 가며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더 중요한 임무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한번도 갖게 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바로 브래든 형제의 중요한 임무였으며, 그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게 알게 해주었다.

브래든 형제의 교육 방법은 독특한 것이었다. 테네시 출신인 그는 해군 시절에 가졌던 해양 경험, 달빛과 수박밭 등에 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했다. 그가 우리 집을 방문하여 적어도 그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중 한 가지라도 들려주지 않고 잠시 확인하는 식의 방문을 마치고 우리 집을 떠난다면 정말 섭섭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고자 함은 우리에게 대한 그의 헌신의 증거이다.

또한 그처럼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는 한꺼번에 세 아이를 무릎에 앉힐 수 있었다. 한두 번, 어쩔 수 없을 경우, 나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결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그의 머리에 빗질을 해주어도 조금도 찡그리는 기색없이 그대로 받아 주었다. 브래든 형제는 매우 자상한 사람이다. 아이들과 놀고 난 후에 그의 아름다운 은발이 헝클어진 모습을 보면 마치 그가 해의 왕국에 속할 자의 성품을 그대로 지닌 것 같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봉사하라는 그의 부름의 당연한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 가족 가운데 생일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가 찾아올 것을 안다. 명절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정 복음 교사로부터”라는 글과 함께 기억에 남을 것을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우리들에게 남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책임의 일부임을 가르쳐 준다.

브래든 형제가 우리의 가족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단지 그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다. 말쑥, 제인이 확인받기로 되어 있던 금식 간증회 모임 중에, 제인은 가족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조바심을 내면서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찾았다. 마침내 브래든 형제가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가 늦게서야 예배당에 들어와 뒷문 곁에 앉는 것을 보자 딸은 마음을 놓았다. 딸은 브래든 형제가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여 다른 모든 계획을 포기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기쁘게 그렇게 해주었다. 제인의 이름이 불리자 제인은 브래든 형제에게 가서 둘이 손을 붙잡고 걸어나와 그녀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하나인 그 의식에 참여시켰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참으로 분명하고도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브래든 형제가 제인이 여덟 살 되는 생일날에 준 책에 그는 칠편과 봉사의 중요한 원리를 적어 주었다. 그가 적어 준 글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인을 사랑하고 제인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너의 가정 복음 교사, 브래든 형제가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직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다 쉽게 느꼈을 것이다.

나도 방문 교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 브래든 형제와 같이 행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는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여 좋게 말해 주기 때문이 아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임무를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도 아니며, 우리 방문 교육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부름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이 위대한 잠재 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

# 비활동 회원을 강화함

에이 디어더어 터틀 장로

**활**동 촉진은 교회의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의 하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와드의 활동적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비율이 와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좋은 척도가 됩니다.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녀에게 영향을 줌에 있어서 부모의 모범보다 더 강력한 요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과 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활동의 주기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도구입니다. 이를 대신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창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활동 회원의 경우에는 30일 또는 31일에 방문을 받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활동이 촉진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 즉 이상적인 가정 복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 가운데는 훌륭한 교사도 있고 덜 훌륭한 교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활동 촉진에 가정 복음 교사가 활용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성 20 : 53-55 참조) 가정 복음 교육을 단순히 가는 것

과 가도록 보냄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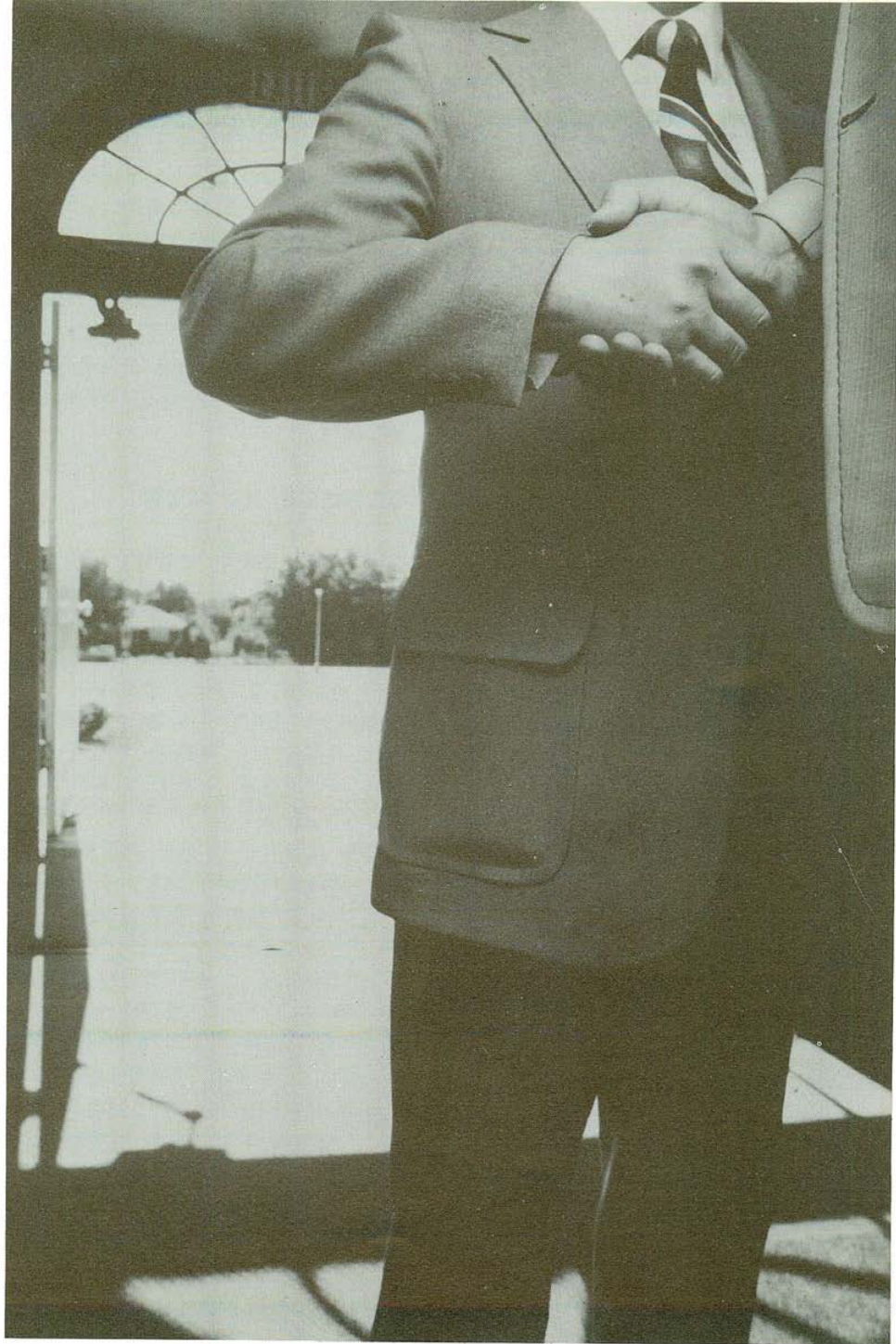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여 우리의 관리하에 있는 자들이 성약을 깨뜨린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입니다.” (“성약에 따라”, 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73페이지)

구세주께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틀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눅 15 : 4). 우리는 활동 회원에게보다는 비활동 회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 파악

먼저 할 일은 비활동 회원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잘 받아들일 사람을 파악하여 먼저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문경에 나와 있는 한 형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서 10장 5절에 보면 엠울페크는 자기 자신을 비활동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오묘하신 섭리와 놀라운 권능을 많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것



이 곤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활동 회원에게 자주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 하지 않았었노라.”(5—6절)

가정 복음 교사, 부모 및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고 그를 활동화시키려 애를 썼지만, 그는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꽤 명성을 얻었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재산도 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지는 못하나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느낌을 여러 해 동안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켜야 한다고 느꼈지만은 그 강한 느낌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님은 앰울레크의 감정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엘마를 그의 가정 복음 교사로 보내어 그를 활동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앰울레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마는 앰울레크를 찾아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앨 8 : 14—22, 10 : 7—9 참조)

모든 와드에는 앰울레크와 같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진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

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훌륭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식이나 간증이 없는 평범한 말일성도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이 투철한 이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때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 비활동화되는 것을 예방함

비활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방법은 예방과 재활동 촉진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비활동 성인의 수만큼 비활동 청소년이 생깁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활동이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활동 부모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비활동 회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 회원이든 비활동 회원이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부모의 특권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감독단은 청소년의 비활동을 예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활동의 횟수나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청소년과 지도자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비활동 회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십시오. 그들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와 영적인 목적을 지니고 여러분의 활동 범위를 넓혀서 모든 활동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미주우리주의 어느 스테이크의 부장단은 19세에서 26세까지의 젊은이들과 접견을 했습니다. 접견을 받은 15명의 청년들 중 열두 명이 현재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와 비슷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 개별적으로 가르침

비활동 회원을 찾아서 구해 내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각 개인에게 맞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존스 형제의 경우를

#### 메시지를 각 개인에게 맞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살펴봅시다. 그는 가정 복음 교사가 방문하면 교사들이 제시하는 의견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와 동반자가 존스 형제 부부와 어린 아들을 방문하였을 때, 그 가족은 그 방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방문할 때마다 날씨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는 존스 형제가 기상통보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으며, 가정 복음 교사들을 다소 압도하려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달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 정원회 회장과 개인의 접견에서, 가정 복음 교사는 존스 형제

에게 담배를 끊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원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번 개인 접견 시에는 존스 형제님께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고 그것에 대한 존스 형제님의 반응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교육을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원회 회장과 가정 복음 교사가 그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토론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가족에 대한 지식과 느낌을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를 드린 후에 가정 복음 교사도 그 일을 임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문 때 가정 복음 교사는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 존스 형제의 집으로 갔습니다. 단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냄을 받아 갈 때 우리는 항상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정 복음 교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과제를 주어 그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권 접견의 참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담대하게 “먼저 주님의 명을 얻어”(야곱서 1:17)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존스 형제의 가정 방문의 처음 몇 분 동안은 전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점차 가정 복음 교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으나 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

다. 방문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가정 복음 교사는 깊이 숨을 들이 마신 후, 주님께 힘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형제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드릴 메시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담배를 끊으시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존스 형제는 가정 복음 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가정 복음 교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형제님이 담배를 끊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영을 느끼게 하는 진지한 음성으로 존스 형제로 하여금 그 사람이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존스 형제는 자신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형제님은 해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형제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첫째 단계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존스 자매가 재빨리 끼어 들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끊을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알아요.”

존스 형제는 말했습니다. “나도 끊을 수만 있다면 좋겠소.”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가정 복음 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에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스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활동도 하지 않는데요.”

가정 복음 교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활동 회원이십니다. 형제님께서 아드님 손을 잡고 산보하시면서 새와 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고귀한 활동이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존스 형제는 반항하는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가정 복음 교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시다면 형제님,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화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조직화된 종교에 속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가정의 밤 교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가족이 기도한 후에 가정 복음 교사는 떠났습니다. 후에 존스 형제는 가정 복음 교사의 딸에게, “네 아빠는 참 훌륭한 분이시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비활동 회원이 현재는 감독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하여 그에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씩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잔혹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개별적인 접촉이 편리할 수도 있으며, 어떤 종류의 권고는 아내나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저서는 안됩니다.



비활동 회원은 환자들의 증상이 각기 다른 것처럼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체온을 재고 아스피린을 먹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증세가 극히 심하여 신중한 치료를 요합니다.

## 사람에 따라서 직접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함

선교사의 접근 방법은 직접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비활동 회원들도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활동 회원의 10퍼센트가 즉시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장로가 되거나 신전에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초대하여야 합니다.

어느 스테이크에서는 이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정 복음교사들은 열 네 가정을 방문하여 가장에게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열 네 명의 가장이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정 복음교사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솔트레이크의 밀크리크 스테이크에는 500명의 수련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총관리 역원 한 분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청하는 것만으로도 10퍼센트 정도를 활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일년에 겨우 열 네 명을 장로로 성임하였습니다. 그후 2개월 반이 지났을 때 그들은 다음 스테이크 대회에서 성임받도록 마흔 일곱 명을 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두 교회에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스테이크 회원이 정해진 목표를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비활동 회원들은 그들 스스로 향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부분의 스테이크에서도 겪은 일입니다.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성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함(간접적인 접근)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활동 가족과 똑같은 입장에 서야 합니다. 처음 한두 차례의 방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맘 때면 나뭇잎이 참 아름답지요?”

“이번 고교 야구 대회에서는 어느 팀이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여름은 지낼 만하군요.”

“이번 겨울은 어떨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규 가정 복음 교육 방문 이외에도 종종 방문하십시오.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방문해서 잔디밭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 등에 대한 제언을 줄 수 있습니다. 밭을 갈 때 그 집에 가서 도와 주십시오. 가족에게 식빵 한 덩어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채소나 과일 등 적당한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라면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그의 개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에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녀의 어머니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개인적인 관심과 잦은 방문을 통하여 우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십시오. 공원으로 놀러 가거나 구기 경기를 관람하거나 그들과 함께 소풍을 가십시오. 비활동 가족을 지명받게 되면, 그

---

#### 점차적으로 개인적인 관심과 잦은 방문을 통하여……

---

가족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도록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젊은 부부일 경우에는 할머니에게 요리법, 이불 만드는 법, 자녀를 기르는 법 등에 대한 조언을 해주도록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 부인과 함께 장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장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기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불 일이 있을 때 아기를 여러분의 집에 데려다 놓을 수 있게 하십시오.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그에게 장로 정원회와 함께 구기 경기를 하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을 낚시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를 정원회 사고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적합한 시간이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은, “존스 형제님, 나는 형제님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가족 기도를 시작하고, 가정의 밤을 가지며, 복음을 공부하고, 자녀에게 경전 이야기를 읽어 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라는 등의 제언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교회의 모든 조직을 활용함

지금까지 우리는 비활동 회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가정 복음 교사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와드 보조 조직은 가정 복음 교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드 협의 평의회를 통하여 와드 전체의 힘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특별한 가족을 개심시키고 활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권 조직과 보조 조직의 회원을 모두 참여시키십시오. 모든 조직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활동화시키고자 하는 대상 가족을 한 가족씩 택하십시오.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의 교사들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회원의 자녀들의 이름을 택하여 부모를 방문하고 그들의 자녀를 이들 조직으로 초대하십시오. 초등학교 자녀들은 그들의 연령에 맞는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그들의 비활동 정원회 회원과 우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꽃별반, 장미반, 월계반)은 그들 연령층의 소녀들과 우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머니와 젊은 여인을 그들의 반과 사교 모임에 초대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아버지를(이미 언급한 방법으로) 가장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노력이 협의 조정되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표현으로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를 참여시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와 가족이 모두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한 가족을 위하여 동시에 조용하게 그러나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온 가족이 한꺼번에 활동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진지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캠페인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정신을 통한 자연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 복음 세미나를 가짐

거의 모든 비활동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결핍된 두 가지 요소는 지식과 간증입니다. 어떠한 명칭의 세미나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복음 세미나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 형제 자매는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1) 복음의 구원 의식, (2) 합당하게 신권을 소유하는 단계, (3) 회개하는 단계와 신전 추천을 얻는 방법,

그리고 (4) 활동과 봉사의 기쁨.

일반적으로 세미나는 가정에서 약 다섯 쌍이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때때로 교회 건물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비활동 형제 자매들의 필요 사랑을 충족시킵니다. 리치필드 스테이크의 부장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77년 여름에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다섯 차례의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74쌍의 우정 증진 부부가 부름을 받았고, 353쌍의 수련 장로와 아내가 등록하였으며, 40쌍의 부부가 신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47명의 수련 장로가 세미나를 수료하여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활동화된 회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 기도

형제 자매들을 활동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기도로써 행하여진다.”(알프레드 테니슨, 국왕 목가, “아서왕의 죽음”, 415—16행)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신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엘마에게 백성들과 그의 부친의 기도 때문에 그에게 왔다고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사이야서 27 : 14 참조)

미주우리의 어느 와드는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감독단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그들이 활동화시키고 다음 일요일 모임에 초대해야 할 사람들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주일에 그들은 각자 한 사람씩을 다음 일요일에 있는 모임에 초대하였습니다. 여섯 형제 중 네 명이 특별한 이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감독은 그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한 형제는 지난 주 일요일에 (그들의 이름이 결정되던 주일) 그는 그의 생활을 청산하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지난 일요일에 자기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고 술회하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교회를 등지고 있었으나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는 모임이 끝난 후 감독을 만나 자신이 정말 활동 회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스테이크에서는 삼십 세대의 비활동 가족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 열 여섯 가족이 즉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임무를 지명함

사람은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되어 무엇인가 행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소속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형제 자매들도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러분이 무시되거나 소외되서 마음을 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이 임무로부터 해임이 되었는데도 지도자나 어느 회원도 교회에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이 육개월, 혹은 일년 혹은 이년 동안 관심 밖의 인물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한 태도가 건

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불쾌하게 여기다가 냉소적이 되고, 다음에는 비판적이 되고, 결국에는 비활동화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비활동 회원은 오랫동안 소외당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이고 약간의 발전을 보이면 그들은 능력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은 그들에게 우정을 나누는 형제의 가정 부음 교육 동반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적합한 부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비활동 회원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가치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 일치 단결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함

우리 모두는 비활동 친구들과 가족이 온전하게 활동하도록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동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주님과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돕고, 그들이 이 현세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지런히 추구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이 활동 촉진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수고는 교회의 다른 모든 일의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비활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회개의 첫번째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

# 4,800킬로미터를 달린 여인

이 데일 르배론

“1,600킬로미터의 여행이 어떤 것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메이비스 허치슨은 말한다.

사실, 1,600킬로미터가 아니라 4,800킬로미터의 여행이었다. 1978년, 신 세 살이나 된 남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로스앤젤리스에서 뉴욕까지, 문자 그대로 미국을 횡단했다. 그리고 메이비스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칠패를 받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함으로써 영원한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여행이 모두 도전적인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 두 가지 여행은 모두 무한한 가치있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아들들을 쫓아가는 것으로 내 일생을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그녀의 여섯 명의 자녀 중 밑으로 두 아들이 달리를 하였는데 37세 된 그녀는 자신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아들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다. 1963년, “트란스발에서는 걸기 대회가 대유행”이 되었으며, 메이비스는 “그 나라에서 가장 잘 걷는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시합, 끊임없는 인내와 훈련, 자아 발견 등에 흥미가 있었다.

메이비스는 결코 자신을 운동가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 조지 본은 “지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구멍”이 있는 킴벌리에서 달리기와 럭비 선수였으며, 그곳 금강석 광산에서 일하

고 있었다. 그러나 신경이 예민한 어린 아이였던 메이비스는 침대 초반에 무도병에 걸려 세 차례에 걸쳐 석 달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달리기란 여섯 자녀의 어머니요, 지금은 일곱 손자 손녀의 할머니인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어네스트 허치슨 부인의 생애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발전이었다.

그녀는 걸기 운동에서부터 대륙 횡단 달리기로 발전해 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성의 대륙 횡단을 합법적인 운동으로 인정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았다. 그녀는 해외에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 팀을 편리하도록 임명되어 1969년에 영국을 여행하였다.

그 당시 그녀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힘든 마라톤 코스”의 하나인 콤파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마라톤 코스는 해발 1,360킬로미터나 되는 피에티마리즈버그에서 출발하여 해안 도시인 더반까지 87킬로미터의 험한 길을 달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향” 달리기이며 다음 해에는 더반에서 시작하여 피에티마리즈버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 달리기가 열린다.

그 당시 달리기는 생활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였고 자신을 더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러던 1978년, 그녀는 일생 일대의 커다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미국을 완전히 횡단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물론 선교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국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녀는 그들에

게 “최종 점검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1978년 3월 12일, 로스앤젤리스 시청 계단에 선 그녀는 자신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생에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나의 가장 큰 야망이지만 걱정이 된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내 앞길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 내 건강이 지탱될 수 있을까? 나는 잘 준비하였는가?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시계가 아홉 시를 쳤고 그녀는 출발했다. 두 대의 호송차의 보호를 받으며, 베이비스는 아침 네 시부터, 식사 시간만을 빼고 하루에 열 네 시간 동안 뛰었다. 그녀는 네 개의 표준 시간대를 지나 열세 개 주를 통과했다. 그녀는 육백만 개의 발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스물 다섯 켈레의 신을 갈아 신었으며, 마흔 번이나 수선했다.

그녀는 거의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를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4주 동안 강렬한 더위에 시달렸고, 다음 4주 동안은 질풍에 시달렸는데, 문자 그대로 바람에 날려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게다가 매서운 추위로 운동복을 두 벌씩 입고 베레모와 장갑, 그리고 방풍 자켓을 입고 뛰었다. 그런가 하면 7일 동안은 계속 비를 맞으며 뛰기도 했다. 비가 어찌나 심하게 내렸던지 우비를 입고도 한 시간만 지나면 옷이 젖어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우비를 두 벌이나 입었다. 두 벌을 입으면 베 시간은 났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문제가 된 것은 기후뿐만이 아니었다. “교통 문제가 대단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자동차가 7초마다

한 대씩 확확 지나가던 때도 있었다. 그녀는 정강이에 부목을 대어서 도저히 뛸 수 없었지만 삼십 삼일째 되던 날 단 하루를 쉬었을 뿐이다. 그 다음날, 그녀는 이를 막고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또 달렸다.

“나는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통증을 없애 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다만 견딜 수 있게 해 달라고 빌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자주 “‘제발, 하나님이지여, 바람과 싸울 수 있는 힘, 제가 끝까지 주파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한번도 내가 이 대륙 횡단 달리기를 마치지 못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하루를 또는 한 시간 동안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은 몇 번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존 헨리 뉴먼의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를 생각했지요. ‘내 갈길 모두 보기 원치 않으니 발 앞에만 비추어 주옵소서.’”(찬송가 107장, “어둠에 싸인 밤에”)

마침내 날씨가 누그러졌다. “마지막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5월 20일 정오가 되기 직전에 뉴욕 시청에 도착하였으며,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달린 여성으로서의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69일하고도 2시간 40분 동안을 주파하고 나서도 원기 왕성한 그녀는 대륙 횡단이 끝났다는 사실에 놀라며 “벌써 끝났어요?”라고 말했다.

그것은 가치있는 일이었는가? “예! 나의 무모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연령이 문





윌리엄 이 베렛

스태이크 축복사이며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회 역사 및 교리 명예교수

---

신권의 권능으로  
집행된 것이 아닌  
병고침 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것입니까?

---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의 사도 한 분이 주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눅 9 : 49—50)

분명히 병고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신권에 의한 안수 이외에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좋은 건강 습관, 약초, 약, 신앙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표준으로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지상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엘마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일 년 중 어느 절기에 그 땅에 자주 있던 열병으로 더러 죽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신묘한 풀 뿌리와 나뭇잎을 준비하사 절기에 따르는 열병으로 죽는



자는 많지 않았으며”(엘마서 46 : 40)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문화권의 약사들은 여러 가지 자연 요법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의술을 발전시켜 병 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을 가장 혼란하게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연 요법이나 인간의 의술이 적용되지 않는 병고침인데 이러한 치료를 일반적으로 신앙 요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초월한 정신력을 통하여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합법적이기 때문에 종종 혼란을 일으킵니다. 육신을 초월하는 정신력으로 행해진 병고침은 곧 잘 신권에 의한 병고침으로 착각됩니다.

육신을 초월하는 정신력에 대하여 좀 더 많이 배울수록,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의 정신은 건강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이러한 능력을 무시해 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병이 육신을 이기는 정신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

기의 의사들은 병자에게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는 우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것은 의사의 마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연 법칙 때문입니다.

웨이커교의 창시자인 위대한 설교가, 조지 폭스씨는 어느 정도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신앙 요법을 주장하였는데 그중에서 다시 병이 재발하는 경우,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의 메카와 같은 사원에서도 병고침이 행하여지는데, 진실로 병고침을 받는 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흥회에서 병고침이 행하여지지만 그것의 영속성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우기, 기독교 과학자들은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인간의 기능적인 과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육신을 이기는 정신력과 영으로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쫓긴 사람에 의하여 인도된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인도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원에서 병고침을 행하는 신앙도 마귀의 역사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

명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비록 그것이 주술과 마술이 사용된 것이고, 어떤 분위기와 개인이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하진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병고침을 모두 악마의 행위로 돌려 버린다면, 진정으로 선의를 가지고 병자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거룩하지 못한 의도로 정신과 육체와의 관계의 참다운 원리를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험잡꾼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악마는 선을 행할 수 없으나 악한 의도에 물든 인간은 때때로 선과 악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감 영은 그 당시 행하여졌던 최면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면술은 왜곡된 진리입니다. 이것의 기원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원리였으나 악마의 힘에 의해서 뒤바뀌었습니다. ……악마의 능력으로 기원된 원리가 있으면 내게 보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악이란 선이 바뀌어서 다르게 된 것이며 또는 올바른 원리가 악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설교집, 3 : 156—57)

우리는 성경과 역사적인 기록에서 참된 원리를 악하게 사용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술사들은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던 기적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출 7—8장 참조) 초기 사도 시대에, 마술사 시몬은 그의 사탄의 능력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행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 곧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칭송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더라”(행 8 : 10) 1830년, 물문경의 여덟 목격자의 한 사람인 하이람 페이지는 그가 얻은 어떤 물에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시”는 요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과는 모순되지만 그가 받은 방법은 올리버 카우드리를 위시하여 교회의 몇몇 회원들을 속였습니다. 주님은 올리버에게 명하여 페이지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습니다. “저가 돌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사탄이 저를 속인 것임을 말하라.”(교성 28 : 11). 8년 후에 하이람 페이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하면 사탄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보여 주는 능력과 거의 비슷한 강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원리는 선하게도 사용되고 악하게도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병고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은 사탄의 것이라는 지식—다시 신권의 병고침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신앙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고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의 신앙에 신권 권능의 병자 축복이 더해질 때, 그 결과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권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 가운데 절름발이와 장님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와 수족을 못쓰게 된 자와 문둥병에 걸린 자와 마르는 병에 걸린 자와 귀머거리 등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저들을 고쳐 주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가엾게 생각함이다. 나의 가슴이 자비로 충만함이다.”(니파이삼서 17 : 7)

신권에 의한 병고침에서 병자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권능, 곧 신권에 대한 참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신앙은 병고침을 받는 데 축매의 역할을 합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주님께 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소수의 병자에게만 병고침을 행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막 6 : 5 참조)

그런고로, 하나님의 신권이 신앙이 강

한 병자에게 임할 때 강력한 힘을 지닌 병고침의 요소가 신권 소유자로부터 그것을 받는 자의 정신과 육체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에 영향을 줌에 있어서 올바른 상태에서는, 이것은 자외선이나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감 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병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게서 흘러 나가 병자에게로 전해져서 질병이 사라져 버릴 것을 기대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7년, 162페이지)

신권으로 합당하게 행해지는 병자 축복을 통하여 생기는 이 병고치는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말일성도는 신권에 의한 병자 축복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신앙의 힘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훨씬 더 큰 효능을 미치는 하나님의 신권의 병고치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병고치는 능력은 다른 모든 병고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능력과 병고침의 영향력은 다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교성 43 : 44 참조) \*

# 작은 책

자크 펠쇼



나는 열한 살 때, 지금도 내 영혼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매우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지탱하고 보호해 줄 힘이 필요했습니다.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 간증은 나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해주었으며, 몇 해가 지난 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매기 이모와 그녀가 나의 막내 동생에게 성탄절 선물로 준 “십계명”이라는 작은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기 이모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천사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기 이모는 경전을 사랑했습니다. 이모의 생애는 비이기적인 생애였으며, 가족이 함께 모일 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일상 생활의 지표로 삼아야 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이모의 집에 있으면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내가 작은 책을 읽고,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전해졌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도 그와 같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에드레스와 남동생 웨이드와 나는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모래 언덕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노한 듯한 검은 구름이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폭풍을 전에도 보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 집 풍차가 쓰러졌고 마당에 있는 나무의 큰 줄기가 부러졌으며, 농장 창고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우리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에드레스는 울기 시작했으며, 나와 남동생은 에드레스를 붙잡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동생은 빨리 쫓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건초밭과 과수원을 지나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속도를 늦춰야 했습니다. 뛰어가면서 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 주실거야. 우리가 주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거야.”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했



읍니다. 그것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고, 또 일종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야. 주님께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 주실거야.” 나는 무서웠지만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했기 때문에 걸로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했지만 어린 에드레스는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기 이모의 말씀과 작은 책에 써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읍니다. 우리가 겨우 과수원의 복숭아밭을 지나 사과밭을 지나려 할 때, 불붙는 듯이 흥분된 온기가 내 몸을 휘감으면서, 내가 무서워하는 동생들에게 한 말이 진실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슴 속에 불붙는 듯했던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읍니다. 내 키가 지붕 꼭대기만큼이나 자란 것 같았읍니다.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읍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고,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일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

기 시작했지만 나는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엄마가 우리를 맞으러 뛰어오셨읍니다. 엄마는 에드레스를 품에 안았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뛰어갔읍니다.

후에 나는 과수원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나는 내가 영적인 경험을 했음을 알았으며, 그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것 때문이었음을 알았읍니다. 엄마와 할머니와 이모가 서로 종교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들면서 나는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이 지구 어딘가에는 내가 스스로 결정했던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의 표준으로 주신 방법임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이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 내가 말일성도를 알게 됐을 때 나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매기 이모와 경전에 대한 이모의 신앙, 그리고 작은 책의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

# 폭풍 놀만호

키이드 브라운  
웨론 브라운에게 들려준 이야기

---

즐거운 소풍은  
차갑게 내리는 비와  
성난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변했다.  
비에 흠뻑 젖은  
지친 소년단 단원들은  
살 곳을 찾으나  
아니면  
죽는나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

시에라 산맥의 여름 비는 대개가 몇 시간 정도 오다가 그치므로,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대원들에게 짐을 꾸리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좋은 낚시터로 알려진 벤치 계곡에 있는 호수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동안의 야영과 등반을 한 뒤여서 우리는 열대성 폭풍 놀만호가 캘리포니아주를 엄습한 것을 알지 못했다. 폭우와 바람과 배를 전

복시킬 듯한 파도를 동반한 “폭풍 놀만호”는 미국 전역을 휩쓸 기세였다. 그러나 9월의 첫번째 일요일에 우리는 시원한 비를 맞았다.

시에라 산맥에서 일주일 동안의 여행은 감독인 나와 와드의 탐험대 연령의 소년들의 연중 행사가 되었다. 나는 십대 때 여러 차례 시에라 산맥을 등산했다. 이제 감독으로서 나는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등산이 나와 소년들의 사이

를 가깝게 해주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번은 내가 지도자로서 여행하는 여섯 번째의 여행이며, 지금까지는 비교적 수월한 여행이었다. 그 이유는 우선 성인인 리치 형제와 크리스찬스 형제가 나를 도와 주었고, 둘째는 일곱 명의 소년들이 과거에 나와 함께 여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명만이 시에라 등반이 처음이었다. 스티븐 나이트는 지난해 그의 형 짐이 등산에서 돌아와 낚시와 우정과 그리고 자연의 경이에 대하여 감탄하며 한 이야기를 듣고 줄곧 이 등반을 계획해 왔었다. 그와 또 다른 처녀 등반자인 커트 무디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의 무경험은 다른 초보자들이 그렇듯이 늘 약간의 사소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곧잘 실수를 저질렀으며, 배낭을 짊어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다리가 아프고 근육이 뻣뻣해진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그날 11킬로미터의 등산 여행을 즐겼다. 우리는 몇 개의 작은 냇물을 건넜고, 초원을 걸어서 지났으며, 벤치 계곡으로 들어가는 힘든 등반도 해냈다. 나는 그들에게 “아직 텐트를 치지 마라. 텐트를 적셔서는 안돼. 비웃을 입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지시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겪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비가 곧 그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낮이 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아 우리는 텐트를 쳤다.

“통나무를 쪼개어 마른 나무를 모아 불을 피야겠다.”고 나는 지시했다.

“비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짐이 물었다.

“저쪽에 있는 바위 뒤에 불을 지피라. 그곳에서는 비를 좀 막을 수 있으니까.

비가 와도 꺼지지 않도록 불을 잘 피워야 한다.”

젖었지만 따뜻한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텐트로 들어가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비는 계속 내렸다.

“브라운 감독님!”

나는 잠에서 깼다. 아직도 한밤중이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텐트 밖에 비에 흠뻑 젖은 스티븐이 떨고 서 있었다.

“우리 텐트에 비가 새요. 전부 젖어서 추워요.”

나는 스티븐을 나와 같은 텐트를 사용하는 스티브 리치와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나는 스티븐이 그의 텐트를 열어 놓은 채 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비가 스티븐과 함께 천막을 사용하는 키트에게 들이쳤다.

몇 시간 후에 나는 다시 물에 젖은 것 같은 기분에서 잠을 잤다. 텐트를 붙들어서 맨 말뚝이 비와 바람 때문에 뿔뿔이 뚝뚝 끊어졌다. 텐트 한쪽이 내려앉아 그 위에 고였던 물이 우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빠져 나와 말뚝을 박고 불을 다시 피웠다. 그러나 천막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말뚝이 빠졌다. 다시 말뚝을 세우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비에 젖은 야영지에 날이 밝았다. 키이드와 마크 넬슨이 일어나 보니 그들의 텐트에서 불과 15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못이 하나 생겨 있었다. 다른 두 텐트 사이에도 새로운 냇물이 생겼으며 비막이로 사용하였던 바위 위에서는 폭포처럼 빗물이 쏟아져 내려 그 밑에 있던 짐이 모두 물속에 잠겨 있었다. 소년들

의 슬리핑 백은 거의가 다 젖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록키 산맥의 절벽에 서는 물이 폭포를 이루어 계곡으로 떨어져 장관을 이루었으나 우리는 두려웠다.

“이곳을 빨리 떠나야겠습니다. 여기는 홍수가 질 것 같습니다.”라고 크리스찬슨 형제가 말했다.

“여기는 꽤 높아요. 비가 눈으로 변할 겁니다. 이리다가는 눈사태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영이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옳았다. 우리는 쉴 수 있고 덜 추운 곳을 찾기 위하여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급히 텐트를 철거하여 짐을 꾸렸다.

“식량은 얼마나 가져 가야 할까요? 이것을 다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스티브 리치 형제가 물었다.

“예.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갑시다.” 나도 동의했다.

“차 있는 곳까지 계속 내려가요. 이젠 비라면 진저리가 나요.” 코넬 핸슨이 투덜거렸다.

소년들이 합창이나 하듯이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

“이 비를 맞으면서 32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끼 먹을 식량을 가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는 말했다.

“감독님, 꼭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해. 자, 출발이다.”

하산은 악몽 같았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바지단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었던 작은 냇물이 급류가 되어 우리를 쓸어갈 기세였다. 어딜 가나 폭포였다. 등산로 자체가 냇물이 되어 길을 찾기 힘들었다. 바람이 세차



게 불어 나뭇 가지가 휘어졌다. 우리는 분기점을 잃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따라 맥슨 초원까지 내려갔다. 초원에 레인저 통나무 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 나는 그곳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천천히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걸었다. 마침내 초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우리는 놀라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호수가 되었잖아!”

초원은 무릎 깊이 물에 잠겨 있으며 통나무 집은 이상한 방주같이 보였다. 물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호수를 가로질러 계속 걸어갔다.

때때로 물이 허리까지 차기도 했으며, 우리는 모두 춥고 낙담해 있었다.

“자, 계속 걸자. 그러면 곧 이 고생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라고 나는 소년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나는 폴 크리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우리가 올 때는 침범거리면서 건너던 작은 냇물이었다. 그때는 폭이 3미터, 깊이가 30센티미터 가량의 작은 냇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30미터 폭의 한길에 넘은 급류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만 했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으며, 몸을 말리거나 덥게 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대부분의 슬리핑 백이 젖었고, 마른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나무는 모두 비에 젖었거나 물에 잠겨 있었다.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의 비가 내렸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강을 건너야만 했으나 건널 수가 없었다. 걸어서 건너기에는 너무 깊고, 수영하여 건너기에는 너무 물살이 세었으며, 다리를 놓기에는 너무 넓었다. 강의 상류에서는 강물이 절벽 사이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내렸다. 우리는 그곳을 건널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모세처럼 물을 가를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까지 드렸다. 우리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피며 강 하류쪽으로 내려갔다.

약 0.4킬로미터 정도 내려가자 리치 형제가 강 넓이가 될 정도 크기의 커다란 소나무를 발견했다. 전에도 강을 가로질러 쓰러진 소나무를 본 적이 있었으나 이렇게 큰 소나무는 본 적이 없었다. 나무 끝이 완전히 강 건너편 땅에 닿지는 않았지만 양쪽 끝이 허리 길이의 물을 걸어 들어가 잡을 만한 높이에 있었다.

리치 형제가 먼저 안전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건넜다. 그가 소나무 가지

에 오르자 나무가 휘청하면서 물 속으로 빠지려 했으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건너 그는 무사히 건너편까지 갔다. 끝에서 그는 뛰어내려 숲사이를 헤치고 높은 곳까지 갔다.

내가 세번째로 건너기 시작했다. 몇 발자국 건너다가 나는 멈추었다. 두 명의 어린 소년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건널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뒤를 돌아다보았으나, 다른 소년들이 이미 내 뒤에 와 있었다.

“키이드,” 하고 부르자, 금발의 키가 큰 소년이 울려다 보았다. “스티븐과 함께 건너라. 스티븐을 도와 주면서 건너와.” 그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프는 키트와 함께 와.”

“알겠습니다.” 제프가 대답했다.

키이드와 스티븐이 미끄러운 나무를 타고 건너기 시작했다. 흥수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들이 큰 소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이 쓰러진 거목의 큰 가지가 물에 쓸려 내려온 잔 가지들의 통로를 막은 것이었다.

“거기를 밟아.”하고 키이드가 지시했다.

스티븐이 발을 더뎠다. 그러나 스티븐은 키이드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였던 것이다. 잔 나뭇가지가 거품을 일으키면서 흘러가는 급류 밑으로 사라졌다. 스티븐이 그 가지를 따라 미끌어졌다. 그의 배낭 무게 때문에 그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급류는 그를 통나무 밑으로 밀어 내기 시작했으며 그는 급류에 휩쓸려 익사 직전에 놓였다. 키이드는 재빨리 스티븐의 배낭을 움켜잡아 한 손으로 그를 통나무 위로 끌어올렸다.

무서웠지만 별도리없이 그들은 나무를 타고 강을 건넜다. 그러나 스티븐

에게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어떤 가지를 밟았을 때 그 가지가 꺾어지고 말았다. 그는 다시 큰 나무 밑으로 빠졌고 키이드가 다시 그를 끌어올렸다.

이제 스티븐은 발자국을 떼어 놓기가 무서웠다. 키이드는 그의 배낭을 벗겨 자기가 짊어졌고, 스티븐은 맨몸으로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건넜다.

스티븐은 땅에 발을 내딛자 떨기 시작했다. 출기도 했지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공포가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옷을 갈아 입어야겠구나.” 나는 그의 생각을 졸전에 있었던 무서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애쓰면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 젖지 않은 셔츠와 내가 입고 있던 젖지 않은 모직 스웨터를 주었다. 한 소년이 그의 짐 꾸러미에서 젖지 않은 바지를 꺼내 주었다.

그가 옷을 갈아 입는 동안 다른 소년들이 나무를 타고 건너왔다.

“조심해. 너는 스티븐보다 크기 때문에 난 너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제프가 커트에게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으나 미끄러운 나무가 움직여 커트는 균형을 잃고 빠져 버렸다. 그는 몸을 간신히 추스려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으나 급류의 힘과 배낭의 무게 때문에 다시 나무 위로 기어 오를 수가 없었고 제프는 그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 제프도 균형을 잃을 뻔했으나 제프가 커트의 배낭을 벗게 도와 주었으므로 커트는 다시 나무 위로 올라와 강을 계속 건넜다.

새로운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커트도 몸이 완전히 젖었으므로 나는 갖고 있던 마른 옷을 주었다. 스

티븐은 아직도 떨고 있었다. 마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너무나 떨어져 말할 수조차도 없었다. 그의 몸을 녹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모든 것—장비, 옷, 나무, 땅—이 다 젖어 있었다. 기온은 내려갔고, 설상 가상으로 바람이 한기를 더해 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몸을 움직여 하산하는 것뿐이었다. 리치 형제와 크리스찬슨 형제도 동의했다.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야 했으나 비는 여전히 내렸고 강물은 계속 불어났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도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다. 생각하기조차도 힘들었다. 나는 그것이 체온이 저하되는 증상임을 알았다. 나는 두려워졌다. 체온이 저하되면 신체는 체온을 유지할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은 비맞은 등산가에게 가장 무서운 위험이며, 두 어린 소년들이 잘 견디어 낼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나이가 든 두 소년을 앞서 보내면서 마른 나무가 있는지 찾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렸다.

약 15분 후에 우리는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쓰러진 통나무를 발견했다.

“나무를 간신히 쪼갰어요. 나무 속은 젖지 않았지만 성냥이 켜지지 않아요.” 라고 제프가 말했다.

“여기 있어. 내 라이터를 켜 보자!” 나는 라이터 불을 켰다. 불이 켜지지 않았다. 또 켜 보았으나 켜지지 않았다. 자꾸만 켜 보았다.

“개스가 없나봐요.” 누군가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이번 등산을 위해서 개스를 넣어 왔는데.” 나는 다시 켜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는 성냥을 꺼냈다. 다행히도 젖지

않았다. 한 개비를 그어 댔다. 불이 붙지 않았다. 또 다른 개비를 켜으나 여전히 불이 붙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한 통을 모두 켜 보았으나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두 소년이 몸을 녹이지 못하면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오늘 밤을 지내야 한다면 저도 죽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저희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붙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성냥을 모조리 그어했으나 하나도 불이 붙지 않았다.

“아버지시여, 저는 저들의 감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응답은 비바람뿐이었다.

“주여. 당신께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이제 나도 몹시 떨렸으며 우리는 때때로 소년들의 가슴까지 오는 물을 건너기도 했다. 표시를 해 둔 나무를 보면서 계속 우리는 바른 길로 하산했다. 나는 우리가 완전히 하산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이 어린 소년들의 걸음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앞으로 강을 또 하나 건너야 했다. 그 강은 지금까지 건너온 것들보다 더 큰 강이었다.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소년들의 어머니에게 내가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이제 교회에서의 십대들의 등산 여행은 끝장일겠지? 아내가 일곱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멜라니는 난 지 겨우 두 주밖에 안

되니 아빠의 얼굴을 영영 모르겠구나.” 두려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나는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거의 체념한 상태에서 계속 비에 시달리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구부러진 길을 돌아서 걸었다. 오두막 산장이 보였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임을 깨닫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산장이다! 산장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다. 백슨 초원에 있는 침수된 산장을 제외하고는 이 산장이 32킬로미터내에 있는 유일한 산장일 것이다. 태평양 가스 전력 회사가 겨울의 적설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이었다.

산장에는 네 명의 다른 등산객들이 폭풍우를 피하여 들어와 있었다. 불이 뜨겁게 피고 있었다. 뿔 나무도 그득하게 싸여 있었고, 모포와 식량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살아났다.

모두 몸을 녹이고 옷을 말릴 때, 나는 하나님께 그의 자비를 감사드렸다. 나는 우리가 불을 피울 수 있었다면 지금쯤은 살기 위해서 추위와 투쟁하면서 밖에서 폭풍우를 견뎌야 했을 것임을 깨달았다.

“아버지시여, 불을 붙이게 해 달라는 저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몰라 불평할 때, 바로 가까운 산등성이에 쉴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다시 라이터를 켜 보았다. 단번에 라이터에 예쁜 불이 켜진다.

폭풍우는 우리를 그곳에 이틀 반 동안이나 묶어 놓았다. 그런 다음 눈이 땅을 덮자 우리는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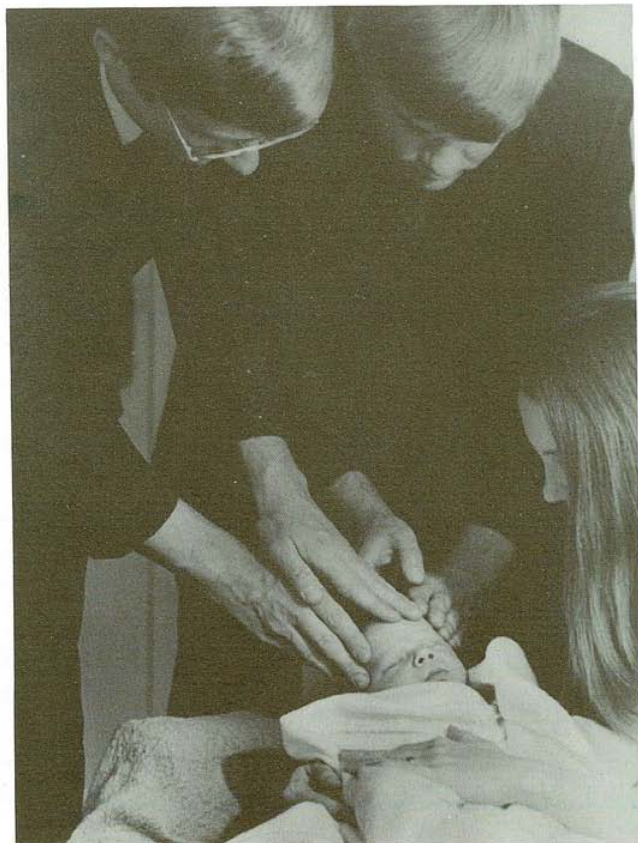
# 나는 신권의 능력이 위대함을 깨달았다.

에이 해머 레이저

---

대 기는 매섭게 차고 습했다. 석탄 난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을 자극했다. 안  
로에서 나온 매케한 연기 내음이 개와 저녁의 어두움이 시야를 좁혔다.

---



이것이 영국의 전형적인 겨울 밤이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지 두 달이 된 나는 동반자와 함께 자매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자전거를 타고 근처 마을로 가고 있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온 음성이 매우 걱정스러웠 듯했다. 그들의 지역에 있는 회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은 후, 그곳에 도착하여 우리는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회원의 집으로 갔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여인은 문을 열어 주고는 우리를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희미한 불빛에서 나는 한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뺨은 부어 올라 있었고, 눈은 슬픔과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다. 속눈썹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벽난로 가까이 있는 작은 요람을 가리키면서 울고 있었다. 그 어머니는 흐느끼면서 “우리 아기가 아파요. 숨을 쉬지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겨울 동안 영국의 많은 아기들이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죽어 갔다.

그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후 3주된 이 작은 아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요람에서 꺼내어 부드럽게 팔에 앉았다. 그녀의 눈물이 아기를 감싼 깨끗한 강보에 떨어졌다. 머리가 작아서 나의 큰 두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손을 아기의 부드러운 작은 머리에 얹자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만져졌다.

이것이 내 생애에서 행한 최초의 병자 축복이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도문을 말했다. “소녀 훌버트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그 순간 나는 내부에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나는 조금도 의심없이, 내가 이 어린 아기를 고치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도구로서 행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경험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차차 잊혀져 갔다. 나의 선교 기간의 2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그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았던 그 마을에서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우리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방문하고 있을 때, 구도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길 모퉁이에 교회 회원이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그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영국의 연립 주택의 모습은 거의 같아서 나는 그 집이 2년 전에 방문하였던 바로 그 집인 것을 곧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여인이 우리를 맞아들였다. 우리가 바로 그 조그마한 방에 들어갔을 때 맑고 푸른 두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의자에 앉자 예쁜 어린 소녀가 내 무릎 위로 기어 올랐다. 어린 아이의 금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순간 잊혀졌던 추억(그 무서운 밤,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어머니, 숨을 할딱거리던 아기, 그리고 분명한 신권의 능력)이 되살아났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권의 능력으로 이 어린 딸을 살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경험으로 해서 힘을 얻었다. 나는 그때 다음 말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는 오늘날 신권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의 신권을 의롭게 사용할 때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 고백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이 보좌

여러 해 전에 한 젊은이가 절도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그들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으며, 사실 그들은 아들을 보석으로 석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의 감독은 선의에서 젊은이에게 그와 같이 훌륭한 청년이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침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저는 죄를 졌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한다면 당신들은 저에게 일생 동안 죄의 짐을 지고 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의 잘못을 보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즉 영혼의 평안보다 더 바람직한 선물은 드물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상한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고백은 온전한 용서를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이 씻어 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양심이라는 일기장에 아무것도 써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백은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과 주님께 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범법 행위일 경우에는 합당한 신권 지도자에게도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원이나 신권 소유자가 다 범법자로부터 죄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정연하고 일관성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의 합당한 역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모사이야서 26 : 29, 교성 59 : 12참조) 와드에서는 감독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부에서는 지부장이, 스테이크나 선교부에서는 스테이크 부장이나 선교부장이, 교회의 높은 신권 역원에 대해서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들 주축으로 한 총관리 역원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용서가 낳은 기적, 294페이지)

감독에게 고백해야 하는 범법 행위란 간음, 사통, 그밖의 성적인 범죄 및 그와 필적되는 심한 범죄입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람은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깨끗하고 온전히 고백해야 한다.”(용서가 낳은 기적, 165페이지)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의식에 시달리는 영혼의 고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엘마는 “방황하며 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회개하였으나...”(모사이야서 27 : 28) 그가 영원한 불길에서 건져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쉬운 것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보다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은사는 그토록 좋으며, 범법자를 특별한 애정의 유대로 구세주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나는 자신의 가장 두렵고 성스러운 책임은 내가 와드 회원을 관리하는 “보통 판사”(교성 107:74)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진지하게 고백을 할 때 내가 지니고 있는 이성스러운 역할을 인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은밀히 간직하기로 서약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내가 영으로써 올바른 조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나는 가장 친절한 심판이란 행위에 대한 공평한 “보상”에 의해 공의의 요구 사항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범법 행위에 요구되는 것보다 적게 요구하는 것은 빛을 일부 남겨 놓고 죄의 짐을 일부만 없애는 것이 됩니다. 때때로 감독의 동정심 때문에 관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없는 관용은 친절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회개하면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피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앨 36 : 20—21)

나는 여러 해 동안 마음속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니면서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해 감독에게 고백하는 대신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후하게 기부하고 봉사했던 교회 회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선행으로 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킴블 대관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통에서 썩은 사과를 모두 제거하고 신선한 사과통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용서가 낳은 기적, 165페이지 참조)

주님의 방법을 더 쉬운 방법이나 지름길로 대처하려 들지 마시다. 오늘 우리는 감독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합니다. “감독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독님을 만나도 좋을까요?”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특별한 열쇠와 영감을 받은 감독은 여러분이 새롭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새출발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



# 쌍둥이







# 파로완에서 생긴 일

올리브 더블류 버트




---

“아름다운 곱슬머리가  
 눈처럼 흰  
 이마를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퍼하는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소리없이 들어갔습니다.”

---

1854년 2월의 어느 춥고 맑게 갠 아침, 발티모어에서 온 어느 젊은 화가는 두툼한 모직 자켓을 입고 모자를 쓰고 산보하고 있었다. 그는 남부 유타의 조그마한 물몬촌을 여행하고 싶었다. 전날 오후에는 너무나 피로하고 지

쳐 있었기 때문에 주위를 눈여겨 볼 기력도 없었다. 그때 그는 스무 명 가량의 죽어가는 동료들과 함께 산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그들은 그날을 살아 남기게 될지 알지도 못했고 어떤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다.



39.

그러나 그들 눈에 들어온 계곡 밑의 광경은 기적같았다. 마을이다! 사실, 집들은 작고 거의 눈으로 덮여 있었으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다. 음식과 휴식처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솔로몬 눈스 카르발호라는 화가였다. 그는 존 시 프레몬트(미국인으로 장군이며 탐험가, 1813—1890)와 함께 록키 산맥을 횡단하는 겨울 여행을 하고 있었다. 프레몬트씨는 철로가 이 길을 따라 놓일 수 있는지, 그리고 연중 내내 운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카르발호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이지만 그는 남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 후에 그는 매릴랜드 발티모어로 이주하여 사진관을 경영하였다. 그는 뉴욕 여행 중 거의 미지의 세계였던 서부로 다섯 번째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하던 존 프레몬트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바깥 세상이라고는 거의 알지 못하였고 또 한번도 모닥불을 피우거나 말에 타 본 적이 없었던 카르발호는 서부에 대한 프레몬트의 이야기만 듣고도 흥분하였다. 그는 자기도 그같은 모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프레몬트씨가 사진 작가를 데리고 함께 여행하면서 그곳의 풍경, 인디언, 야생짐승 등의 사진을 찍게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을 자원하였다. 후에 그는 그사람 외에는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기꺼이 위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카르발호는 야외 촬영술을 배우기 위해 발티모어로 돌아왔으나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탐험대와 동반하여 여행하는 최초의 사진 작가였으며, 그는 말을 타고 안전하게 여행하면서 또한 급

히 도구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짐을 꾸리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또한 그는 요즈음과 같은 사진 필름이 발명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무거운 유리판 등을 조심스럽게 꾸려야 했다. 그의 친구는 허리까지 쌓인 눈 속에서나 눈보라 가운데서도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도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그들은 그러한 악천후가 닥칠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으나 카르발호는 연구하고 계획하였으며 그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준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탐험 대원들은 스물 두 명이었다. 지도자인 프레몬트, 사진 작가, 지형학자, (지도를 만드는 사람) 일곱 명의 보조원, 열 명의 델라웨어 인디언, 그리고 말을 보살피는 야영 일을 돕는 두 명의 멕시코인 등이었다. 공식적인 안내자는 없었다. 그래서 프레몬트는 그들의 여로를 계획하였다. 그는 이미 서부의 개척자로 유명했다.

록키 산맥으로 가는 동안의 여행은 계속 순조로웠다. 그러나 그들이 록키 산맥에 도착하였을 때는 12월이었으며, 이미 초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산을 넘는 일이 이제 어렵고 위험하게 되었다. 추위와 눈 때문에 그들의 여행 속도는 늦었다. 인디언은 그들의 장비를 훔쳐갔고 식량도 떨어져 말을 죽여 식량으로 써야 했다. 두 달 이상을 그들은 산을 넘느라고 고투했다. 마침내 12월 어느 날 오후 병들고 지쳐 쇠약해진 한 사람이 죽었고, 그들은 계곡에서 나와 파로완 마을에 닿게 되었다.

그 지역의 400명의 물몬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지친 탐험가들을 맞아들였다. 친절한 가족들이 그들을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음식

을 먹이고 몸을 녹이게 하며,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쉬게 해주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카르발호는 여행 중의 모든 역경을 견디었다. 그는 프레몬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종종 지도자들과 지도를 살피는 것을 돕기 위하여 차갑고 습기찬 밤에 그와 함께 밤을 세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과 휴식이 이 사진작가의 원가를 되살렸고, 이날 아침 그는 산보하다가 깨끗한 통나무 집이며, 마당, 마굿간, 교회 예배당, 그리고 학교를 보게 된 것이다. 그는 다른 도시로부터 이토록 멀리 떨어진 외딴 산간에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그 마을을 거닐면서 보았던 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마을을 둘러보고 있을 때, 나는 흙벽돌 오두막집 앞에서 크게 낙담한 모습으로 서성거리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갑자기 여섯 살 된 외동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문을 가리켜 주어 나는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짚으로 엮어 만든 깨끗한 요 위에 천사 같은 어린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잠이 든 모습이라기 보다는 살아 있는 건강한 사람의 잠든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곱슬머리가 눈처럼 흰 이마를 내리덮고 있었습니다...나는 슬퍼하는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소리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침대에 몸을 엮드리고 얼굴을 베게에 파묻고는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나는 죽은 소녀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반 시간 동안에 나는 훌륭하게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돌아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방해한 것을 사과하면서, 나는 지사가 보낸 탐험 대원의 일행이라고 말했습니다. ... 나는 스케치북에서 그 그림을 떼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그녀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보내진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의 초상화나 사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 가시기도 하시느’ 분을 신뢰하라고 부탁하고는 기쁨과 슬픔에 빠져 있는 그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나는 상을 당한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와, 이 가엾은 여인에게 슬픈 마음에 한 가닥의 화평의 빛을 주게 된 이상한 사건을 깊이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다음날 그곳을 떠나려 할 때 나는 마차 안에 계란, 버터, 그리고 빵 몇 덩어리와 함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라는 쪽지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발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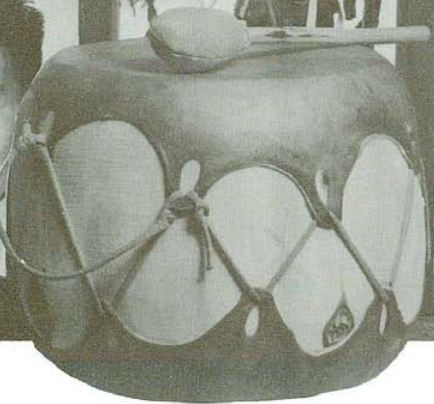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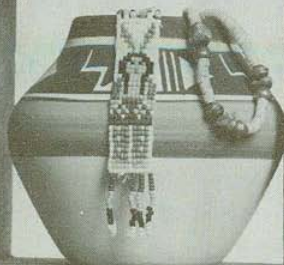
이 화가가 그린 소녀의 이름은 매리언 해리슨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종종 그 그림을 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1950년, 파르완이 백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던 때, 이 스케치가 그 마을의 박물관에 기증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그림은 오래 전 추운 2월 어느 날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었다. \*

---

조린 메레디스가  
총관리 역원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개인 접견에서

---

친구가  
친구에게



# 친구가 친구에게

조린 메레디스

조린 메레디스가 총관리 역원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개인 접견에서 (총관리 역원의 이름을 알려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참조한다.)

**제** 남편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어요. 시어머니는 양탄자를 만들어서 시골 상점에 내다 파셨고, 시아버지는 양을 치고, 뿔나무를 자르시고, 물을 길으셨지요.” 이 총관리 역원의 아름다운 젊은 부인은 무릎에 아기를 앉혀 놓고 흔들며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열 명이었으며 시택이 있는 곳은 아주 벽촌이어서 가장 가까운 마을도 2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어요. 자동차도 없었고 수도물도 없었어요. 식수의 질이 나빠 그곳 주민들은 물 대신 과일 주스나 소다수를 마시기도 했어요.

“남편이 네 살 때 몹시 아파서 혼수 상태에 빠졌었어요. 모두들 그가 죽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사실, 가족은 그를 관에 넣어서 장사지내려 했다는군요. 그런데 관 속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아이가 살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재빨리 관을 열어 보니, 아이가 일어나 앉아서 ‘소다수 좀 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후로 그의 별명이 ‘소다수’가 되었다는군요.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이 있는 후로 그는 아주 다른 아이가 되었대요. 전보다 더 책임감있고 가족을 잘 도왔대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특별한 영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대요.

“그의 가족의 주식은 비스킷 반죽으로 만든 빵, 양고기 스투, 그리고 간혹 소다수가 있었대요. 요즘은 그분은 뜨겁고 향긋한 음식이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하시지요.

“그는 아홉 살이 될 때까지 양을 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학교 기숙사에 들게 되었지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진짜 이름을 발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영어 이름을 그에게 지어 주었지요.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다른 세 명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게 되었지요.

“상점을 경영하는 말일성도 선교사 부부가 남편이 열 살 때 칩레를 주었고, 그 후로 그는 교회에 나가 봉사하셨어요. 그는 교회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택되어서 양부모의 집에서 살면서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유타주로 보내졌지요. 버스가 출발하기 한 시간 전에 친구인 블룸필드 형제가 그의 머리에 그릇을 씌우고는 속성으로 머리를 잘랐대요. 그의 모든 소지품을 구두 상자 안에 넣었어요. 그는 구두 한 켤레도 없었으니까요. 그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는 구멍이 여러 군데

났었어요. 그는 밤 버스에 올라탔어요. 블룸필드 형제가 미화 2불을 주면서 다음날 아침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기까지 들은 나는 그 어린 소년이가족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낯선 문화에 들어가려고 버스에 올라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년과 그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대는 오직 그가 말일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유타에 있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 첫날 어린이들이 모두 제 남편 주위로 모여 들었어요. 그들은 인디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너는 얼굴에 인디언 칠을 안하니?’ ‘모카신 신은 어디 있지?’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양부모님은 인디언 양아들이 너무 수줍어해서 각별히 염려하고 신경을 쓰셨지요. 사실, 처음 석달 동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예, 아니오 뿐이었다니까요. 성탄절에 그들이 그에게 바지 두 개, 셔츠 녀 장, 양말 두 켤레를 선물로 주셨대요. 엄마가 그에게 이층에 올라가서 입어 보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그는 셔츠, 바지, 양말을 있는 대로 다 입고 내려왔다는군요. 아몽든 새로운 언어와 관습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웠지요.”

“지금 제 남편은 상당히 바쁘지만 미식 축구와 농구를 아주 좋아하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이 나면 하모니카도 즐겨 불어요. 지난 성탄절에는 총관리 직원들을 위한 파티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했어요.”

“제 남편은 가정의 밤은 자녀를 지도

자가 되도록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고 계시요. 그분은 항상 자녀에게 사회를 맡기지요. 또 다른 자녀는 기도를 맡고, 다른 아이는 찬송가를 택해요. ‘마지막에 사회를 맡은 아이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요. 대개 공과를 맡아 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찬사의 말을 하지요. 그런 다음 폐회 찬송을 말하고 폐회 기도할 사람의 이름을 말해요.”

“어느 날 아빠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찍 모임을 갖게 되어 새벽 다섯 시에 나가야 했어요. 후에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그가 전화를 해서 우리는 전화로 가족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면, 내가 밥을 다 먹으면 아빠 등에 태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제 친구도 등에 태워 주세요.”

“아빠는 제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을 도와 주세요.”

“아빠는 우리에게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보여 주세요. 아빠는 항상 우리에게 실것이를 한 다음에 선반을 깨끗이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친절하세요.”

“저희들과 함께 축구를 할 때는 우리는 모두 좋게 이야기해야 하지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주제가 무엇이나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인종이 다르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교회는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레이먼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말씀하시지요.” \*

(답: 조지 피리 장로)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  
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  
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막 12 : 41~44)